

박진경이라는 기호와 논쟁화되는 사실들

- 제주4.3제도화 이후 담론변화를 중심으로

김동현(제주대)



노골화된 혐오의 상징이 된 ‘박진경’

박진경을 역사의 감옥으로 vs 남로당 폭동 진압 유공자

- 제주 4.3의 성격 규정을 두고 거대한 반동적 흐름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. ‘추도’와 ‘진실’의 격차 사이에서 박진경은 제주 4.3의 둘러싼 대결적 국면의 기호로 부상
- 정부보고서에 의해 밝혀진 사실을 ‘논쟁’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제주4.3의 성격 규정을 부정하는 것이 극우의 의도라면 우려스럽게도 이러한 의도는 그야말로



진실규명을 위한 과정을 역사부정의 근거로 삼는 전도 재서사화되는 가해자- <건국전쟁>2

영화의 인트로 “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”

우파적 시각의 새로운 역사 서사에 대한 욕망

- 제주 4.3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진경에 대한 재서사화

주술이 된 용어 - ’폭동’
4.3의 희생자 토벌되어 마땅한 ’빨갱이’
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- 노골화된 호명

